

부모의 과보호와 초기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 및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엄 은 미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신 경 민[‡]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와 초기 청소년기 사회불안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강원도에 소재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61명을 대상으로 과보호,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존중감, 사회불안 수준을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SPSS 25.0, AMOS 24.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과보호는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기개념 명확성 및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은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은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부모의 과보호와 초기 청소년기 사회불안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부모의 과보호와 초기 청소년기 사회불안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사회불안, 과보호,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존중감, 초기 청소년

[†] 이 논문은 엄은미의 석사학위 청구논문(2021)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신경민,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Tel: 02-2290-0384 E-mail: kmshin@hycu.ac.kr

사회불안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 상황이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사회적 상황에 놓였을 때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혹은 불안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러한 사회불안은 아동 청소년기에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심리적 문제들 중 하나이며(Johnson, Inderbitzen-Nolan, & Schapman, 2005) 2018년 4대 권역(서울, 고양, 대구, 제주) 소아청소년과 정신장애 고위험군 유병률 조사에서 소아청소년 사회공포증 유병률은 5%로 소아청소년 고위험 정신질환으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 건강톡톡, 2018). 사회불안은 수줍고 내성적인 아동기를 보낸 10대 중반의 청소년에게서 시작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12~13세에 사회불안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 특히 사회불안 장애는 청소년기에 시작하여 치료기관을 찾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피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면 사회·정서적 발달 문제 및 병리적 불안 등 성인기까지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한다(권석만, 2019). 청소년의 경우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침묵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Kashdan & Herbert, 2001) 초기 청소년기가 사회불안에 대한 중재 개입에 있어 결정적 시기가 될 수 있다(박호정, 2015).

최근까지 선행연구에서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환경적, 심리적, 인지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 행동과 자녀의 인지적 요인들이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중

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과보호와 사회불안 관계 연구는 아동,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김경원, 양수진, 2018; 서경현, 신현진, 문지영, 2010; 이슬, 2016; 정은영, 2008; 홍민지, 이소연, 2018). 그 중에서도 과보호와 자기개념에 대한 연구(오세나, 2016; 유고은, 방희정, 2011; 최진영, 2020)와 함께 자기개념과 사회불안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인지적 요인과 사회불안 관계(박누리, 2018; 이보연, 이주영, 2020; Campbell et al., 1996; Stopa, Brown, Luke, & Hirsch, 2010) 등의 과보호, 사회불안, 자기 관련 다양한 연구들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개인의 초기 발달단계부터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과보호 부모는 아동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세상을 경험하고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것을 방해하여 열등감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자녀가 사회관계에서 위축되고 자신감을 가지기 힘들게 한다(서경현 외, 2010). 또한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성인기까지 지속될 경우, 자녀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지며 결과적으로 사회불안이 발생하게 된다(Holmbeck et al., 2002). 부모의 애정과 수용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불안을 감소시키지만(윤은주, 2012), 자녀가 부모의 관심이 지나치고 통제적이며 과보호적이라고 지각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인, 2013; 김경원, 양수진, 2018; 한유리, 박성욱, 2020).

국내에서 처음으로 과보호에 대한 척도를 개발

한 정은영(2008)에 의하면 과보호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자녀의 생활에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여 통제적이고 수용적인 방식을 동시에 나타내는 양육태도로서 과잉기대, 과잉간섭, 밀착통제(과잉통제), 투사적 과보호(과잉보호 및 불안), 자녀분리불안(과잉애정) 5가지 구성요인으로 정의되고 있다. 부모의 과잉 간섭은 청소년 자녀의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을 증가시키며(서경현 외, 2010) 자녀가 부모의 과잉 기대와 과잉 간섭, 심리적 통제를 지각할수록 자녀의 사회불안은 높아질 수 있다(최은경, 임정하, 2018; Linyinglan, 오인수, 2017). 한편, 부모의 과잉 간섭과 과잉 통제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며(김기승, 함혜수, 2019; 김민주, 이사라, 2018; 김원영, 김경식, 2020) 자기개념을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의 스스로에 대한 적극적 탐색과정을 방해하고(문소현, 김형란, 김정숙, 2019) 자녀가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고한 자기상을 확립하는데 있어 제약이 된다(유고은, 방희정, 2011). 결과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한 행동으로 애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

초기 청소년기는 사회불안 유병률이 높아지는 시기이자 자기개념 발달에도 중요한 시기이다(Rapee & Spence, 2004). 자기개념(Self-Concept)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기억, 가치, 특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조직화 되어 있는 자기 지식구조 또는 인지적 도식으로(Campbell et al., 1996; Kihlstorm et al., 1988),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으로 발달하게 된다(Markus, 1990; Marsh, Reich, & Smith, 1983). 자기개념은 내용

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자기의 내용적 측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지식적 요소와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 자기존중감, 자기 평가를 포함하는 평가적 요소가 포함된다. 구조적 측면은 자기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조직적으로 축적하는 하나의 기억 체계이다(송보라, 이기학, 2009). 자기개념 변인들 중 자아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은 인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ampbell et al., 1996). 자기개념 명확성은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명확하고 분명하며,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안정된 정도를 의미하며(Campbell et al., 1996),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Coopersmith, 1967; Rogenberg, 1965).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사회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음이 일관되게 확인되었다(방한별, 김영희, 2019; 최진영, 2020).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가치 없다고 느낌으로써 사회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사회불안이 지속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문소현 외, 2019; 박참이, 2015; Cark & Arkowitz, 1975).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은 정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으며,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으면 자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ampbell, 1990; Campbell, Chew, & Scratchley, 1991; Campbell et al., 1996).

한편 자기개념 명확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 자존감과는 별도로

고유의 설명력을 가진다(Campbell et al., 2003). Stopa 등(2010)은 자기 구조의 세 가지 측면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존감을 통제하고도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선행연구에서도 사회불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자기개념의 구조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기개념 불명확성이 사회불안의 잠재적인 유지요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왔다(박누리, 2018; 방한별, 김영희, 2019; Krupa, 2018).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변인이며 개인의 인지발달 과정에서 분명하고 안정적인 자기개념 명확성을 형성하는 것은 높은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Usborne & Taylor, 2010; 박우람, 홍상환, 2021에서 재인용). 즉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의 문제는 자기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한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Blain & Crocker, 1993) 이는 일상생활 속 부정적인 정서변화와 자기개념 불명확성을 통해 자존감 형성이 방해받는다라는 연구결과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존감 발달에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Nezlek, Feist, Wilson, & Plesco, 2001). 차재선과 임성문(2016)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고 명확한 자기개념을 갖는 것은 자존감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을 접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위협감을 낮추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으면 자기개념이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어 타인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서와 판단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에 잘 대처한다(문경하, 2007). 자기개념의 구조적 변화가 자기개념의 내용에서의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치료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일부 심리치료자들은(Shower et al., 2004)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에서 자기개념의 안정성과 명료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했다(고현석, 김민희, 민경환, 2012).

선행연구들에서 과보호는 사회불안의 예측요인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되었다(오경자, 양운란, 2003; 한유리, 박성옥, 2020; Linyinglan, 오인수, 2017).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보호와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개념 명확성과 사회불안”, “과보호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사회불안”,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변인 간의 예측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부모의 과보호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이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개념이 산발적으로 연구되고 있어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존중감 변인 관련 통합적인 연구는 부재하다.

이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과보호와 사회불안,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알아보고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이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이 초기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각각 매개하는가?

둘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이존중감이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강원도 소재의 초등학교 두 곳에서 중학교 입학 직전의 6학년 학생 287명, 중학교 1곳에서 1학년 학생 66명, 2학년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학교장, 담임교사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전체 481명 중 응답을 안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명의 학생 자료를 제외한 461명의 자료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215명(46.6%), 여자가 246명(53.4%)이었고, 연령은 6학년(예비중학생)이 277명(60.1%), 중1학생이 58명(12.6%), 중2학생이 126명(27.3%)이었다.

측정도구

사회불안 척도.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Greca와 Lopez(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를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2008)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K-SA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8문항), 새로운 상황에서 회피 및 불안(5문항), 일반적 사회 상황에서 회피 및 불안(5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며(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청소년의 불안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2008)의 연구에서 전체척도의 Cronbach's α 를 .90으로, 하위 척도들의 Cronbach's α 를 요인의 순서대로 .88, .74, .69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척도 .93, 각 하위 척도는 요인의 순서대로 .93, .82, .79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이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을 중심으로 나누어 연구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수행불안이 추가적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Beidel, Turner와 Moris(1995)가 개발한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불안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를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중 수행불안을 측정할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식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불안의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문혜신과 오경자(2002)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부모의 과보호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은영(2008)이 개발한 모의 과보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별 문항 수는 과잉기대(5문항), 과잉간섭(5문항), 과잉통제(5문항), 과잉보호 및 불안(5문항), 과잉애정(5문항)의 5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경향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에서 ‘과잉기대’는 자녀를 향한 양육자의 지나친 기대 및 교육열을 의미하며, ‘과잉간섭’은 자녀의 교우관계나 학교에서의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과잉통제’는 자녀의 생활에 과하게 밀착하여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잉보호 및 불안’은 양육자의 불안과 같은 감정이 자녀에게 투사되어 과보호하는 것을 뜻하며, ‘과잉애정’은 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의미한다.

정은영(2008)은 전체척도의 Cronbach's α 를 .65 이상으로 보고하였고, 하위척도들의 Cronbach's α 는 순서대로 .80, .85, .78, .83, .65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척도 .88, 각 하위척도는 하위요인의 순서대로 .80, .61, .74, .79, .62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는 Campbell 등(1996)이 개발하였으며, 김대익(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적 확신성, 자기 지식에 대한 내적 일관성, 자기 지식에 대한 시간적 안정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식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신하는 정도와 자기 지식들 간의 내적 일관성과 시간적 안정성을 보여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익(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하위요소의 내적합치도는 자기개념1은 .78, 자기개념2는 .71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 전반적인 자기존중감(global self-esteem)의 평가를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소의 내적합치도는 긍정자아는 .87, 부정자아는 .8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25.0과 AMOS 24.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5.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분석과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5.0을 사용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모델적합도를 확인하고자 AMOS 24.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수행하였다.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요인부하량을 측정하였다. 모수 추정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고, 부모의 과보호와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이용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Macho &

Ledermann, 2011).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 간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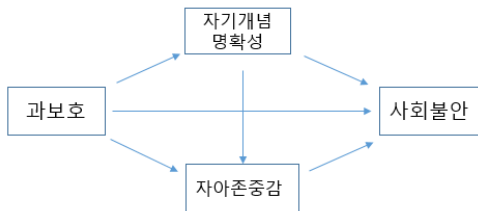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결 과

기술 통계량과 상관분석

연구 변인들의 상관과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성별과 학년을 통제하여 부분 상관분석을 한 결과, 부모의 과보호는 사회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4, p<.01$). 사회불

안의 하위요인인 대인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6, p<.01$), 수행불안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17, p<.01$)를 보였다. 과보호는 자기개념명확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0, p<.01$), 자아존중감과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5, p<.01$). 자기개념명확성은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대인불안과 높은 부적 상관관계($r=-.59, p<.01$)를 보였고, 수행불안과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0, p<.01$). 자아존중감도 사회불안과 부적 상관관계($r=-.54, p<.01$)를 보였다.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대인불안($r=-.54, p<.01$), 및 수행불안($r=-.44, p<.01$)과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개념명확성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r=.50, p<.01$)를 보였다.

측정 모형 검증(Measurement Model)

측정 모형의 적합도 분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하여 측

표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N=461)

	1	2	3	4	4-1	4-2
1. 과보호						
2. 자기개념명확성	-.40***					
3. 자아존중감	-.25***	.50***				
4. 사회불안	.24***	-.55***	-.54***			
4-1. 대인불안	.26***	-.59***	-.54***	.96***		
4-2. 수행불안	.17***	-.40***	-.44***	.89***	.74***	
평균	1.79	3.17	3.67	2.55	2.55	2.56
표준편차	.40	.70	.78	.81	.81	.98
왜도	-.02	.21	-.28	.18	.11	.28
첨도	-.63	-.25	-.27	-.25	-.28	-.58

주. 상관계수는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임

*** $p<.001$

정모형을 검증하였다(표 2). 이 연구의 이론모형에서는 잠재변인을 과보호,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존중감, 사회불안 4가지로 구성하였다. 하위요인이 있는 과보호와 사회불안은 그대로 사용하고 단일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존중감 요인에 대해서는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통해 측정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이 많을 경우 모형적합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문항묶음을 통해 개별문항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분포의 비정규성 문제를 완화시켰다. 또한 각각의 변인이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를 감소시켜 오차를 줄이고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은 표본수가 커질수록 영가설이 기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와 모

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TLI와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선택했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0이상, RMSEA는 .10미만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된다(Kline, 2011). 측정모형의 적합도 결과, TLI=.94, CFI=.96, RMSEA=.07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괜찮은 적합도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모든 관찰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4에서 .95 수준이었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부모의 과보호를 독립변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RMSEA(90% CI)	TLI	CFI	df	χ^2	p
측정모형	.07(.066~.088)	.94	.96	38	129.68	.00

표 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경로	B	β	SE	t
과보호	과잉기대	1	0.56		
	과잉간섭	0.53	0.56	0.06	9.4 ***
	과잉통제	1.35	0.82	0.11	11.86 ***
	과잉보호 및 불안	1.45	0.87	0.12	12.02 ***
	과잉애정	2.66	0.4	0.37	7.25 ***
자기개념명확성	자기개념1	1	0.89		
	자기개념2	1.11	0.86	0.05	20.66 ***
자아존중감	긍정자아	1	0.67		
	부정자아	1.28	0.95	0.1	12.82 ***
사회불안	대인불안	1	1.02		
	수행불안	0.86	0.72	0.06	14.96 ***

*** $p < .001$

인으로 초기 청소년의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적합도 검증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TLI(Tracker-LewisIndex)와 CFI(Ccomparative Fit Index)의 값이 .09보다 높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이 .10 미만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1). χ^2 검증은 표본수가 커질수록 영가설이 기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TLI와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선택했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TLI	CFI	RMSEA(90% CI)
129.68 ***	38	3.46	.94	.96	.07(.066~.088)

*** $p < .001$

표 5. 과보호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존중감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경로	B	β	SE	t
과보호 → 자기개념명확성	-0.85	-0.43	0.12	-7.2***
과보호 → 자아존중감	-0.11	-0.05	0.1	-1.11
자기개념명확성 → 자아존중감	0.65	0.64	0.05	12.2***
자기개념명확성 → 사회불안	-0.54	-0.45	0.07	-7.41***
자아존중감 → 사회불안	-0.36	-0.31	0.07	-5.14***
과보호 → 사회불안	-0.08	-0.03	0.1	-0.77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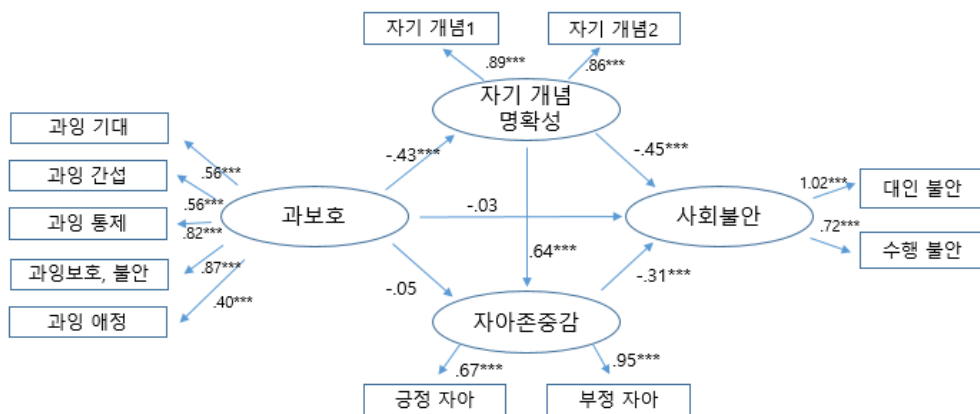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주. 숫자는 표준화 경로계수임. 오차항은 생략함; *** $p < .00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부모의 과보호,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존중감,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부모의 과보호로 하고 종속변인은 사회불안이며,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은 매개변인으로 한 모형의 경로분석결과는 표 5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과보호는 자기개념 명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43, p < .001$) 자아존중감은 사회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 p < .001$). 부모의 과보호가 사회불안에 이르는 직접경로와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부모의 과보호는 초기 청소년기 사회불안과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과보호가 높을수록 초기 청소년의 자기개념 명확성은 낮아지고,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은 높은 사회불안을 예측하여, 부모와 자녀의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높은 과보호는 자녀의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관련이 있었고,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져 자녀의 사회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부모 과보호와 자녀 사회불안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편향변인을 이용한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료 ($N=461$)에서 bootstrapping 표본수를 5000번으로 하여 하한값과 상한값을 도출하여(95% CI)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매개효과 추정 경로값이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유의도 수준 .05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과보호가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과보호는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의 과보호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거쳐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표 6.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경로	추정값	표준오차	p	BC 95% CI	
				lower	upper
과보호 → 자기개념명확성 → 사회불안	.19	.05	.00	.10	.28
과보호 → 자아존중감 → 사회불안	.02	.02	.19	-.01	.05
과보호 → 자기개념명확성 → 자아존중감 → 사회불안	.09	.03	.00	.04	.14

논 의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과보호와 자녀의 사회불안,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 과보호와 자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과잉간섭과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대인불안과 수행불안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김송아, 2008; 박참이, 2015; 서경현 외, 2010).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은 사회불안과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여 모든 변인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모의 과보호와 자녀의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가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경로를 거쳐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과보호가 매개변인을 통해 사회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한유리, 박성옥, 2019)를 지지한 결과이며 사회불안을 낮추기 위한 매개변인들 중 자기개념 명확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방한별, 김영희, 2019)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할수록 초기 청소년의 자기개념은 불안정하고 불

명확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낮아질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를 과보호하는 부모는 자녀들 삶의 문제를 대신 처리해 줄 가능성이 높고,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처리해 본 경험을 갖지 못하게 됨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의 발달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이시은, 2009). 어린 시절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수용과 거부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초기부적응도식이 자신에 대한 명료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최은숙, 김완일, 2014), 자녀의 자율적인 행동과 사회적 경험을 통제하는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 방식은 자녀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고한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제약이 되어 청소년 자녀의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낮아지게 한다(유고은, 방희정, 2011). 이는 자기개념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율성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명확해진다는(배연아, 2016) 기존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더불어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 역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불안을 높인다는(박누리, 2018; 방한별, 김영희, 2019; 최진영, 2020; Campbell, 1990)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에 확신이 없고 명확하지 못하며 불안정하면 자신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해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즉 자녀의 자율성을 박탈한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과보호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사회불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아지면 사회불안이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 연구 결과는

자기에 대한 확신과 자기개념의 명확하고 안정된 정도가 사회불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가 초기 청소년의 자기개념 명확성의 안정적 형성을 저해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존감과 가치판단 형성을 방해하여 사회불안장애 발생을 증가시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의 문제는 자기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한가와 같은 사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Blain & Crocker, 1993), 자존감 발달에 있어 자기개념 명확성은 중요한 변인으로(Nezlek et al., 2001)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존감과 같은 자기관련 변인에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문경하, 2007; 박우람, 홍상황, 2021; 차재선, 임성문, 2016).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자존감의 높고 낮음의 문제는 단순히 자기개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와 같은 문제로 설명되기보다는 자기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한가와 같은 사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제시한 선행연구(Blaine, & Crocker, 199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인지 발달 과정에서 분명하고 안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높은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Usbourn & Taylor, 2010)는 발달심리학적 개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부모의 과보호는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낮은 자

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기승, 함혜수, 2019; 김원영, 김경식, 2020; 정채숙, 마정건, 2003)와는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기존에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 및 연구되어왔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상기의 연구 결과는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인 자기개념 명확성은 내용적 측면인 자존감과는 명백하게 다른 구성개념임을 증명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잉간섭, 과잉통제, 과잉기대, 과잉보호 및 불안, 과잉애정 등의 과보호로 지각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과 안정성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 부족은 낮아진 자기 가치 평가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고 사회불안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는 초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전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부모의 과보호와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관계에서 높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불안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일관되고 명확한 자기개념을 갖는 것은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보완하여 사회불안장애를 완화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

는 초기 청소년의 자기개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상담 및 자기 이해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사회불안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초기 발달단계부터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양육방법 개선에 대한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지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태도를 확인하고, 발달시기에 적합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감소 및 예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언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같은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내용적 측면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확인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아존중감이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두 개념이 산발적으로 혼재된 경향이 있었다. 이 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는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분리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부모의 과보호와 자녀의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존감을 구분하여 그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우람과 홍상황(2019)의 연구에 따르면, 선행연구에서 자기개념 명확성 연구는 주로 대학생이나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소년이나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 95편 중 9편(9.5%)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불안 예측변인 연구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발달과정 중에 있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불안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학년을 통제하여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인 분석 결과에서도 성별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추후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보다 정밀하게 통제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활용된 척도는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기보고식 설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오류, 방어기제, 사회적 바람직성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에는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질적 연구를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보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 양육특성을 함께 비교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지역에서 보다 많은 표본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현석, 김민희, 민경환 (2012).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료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25-846.

- 공수인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불안 및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세경, 송미경 (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4(1), 1-21.
- 권석만 (2019).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경원, 양수진 (2018).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 통제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3), 139-161.
- 김기승, 함혜수 (201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9), 440-450.
-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기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에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주, 이사라 (2018). 부모의 과잉간섭이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5, 5-25.
- 김송아 (2008).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원영, 김경식 (2020). 청소년이 지각하는 과보호 양육,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7-103.
- 문경하 (2007). 자기개념명확성과 자의식이 주관적 안녕감 및 평가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소현, 김형란, 김정숙 (2019). 학령후기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6), 63-73.
- 박누리 (2018). 자기개념 명확성과 사회불안의 관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우람, 홍상환 (2021). 자기개념명확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초등상담연구* 20(1), 1-30.
- 박참이 (2015).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방한별, 김영희 (2019). 초기 청소년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4), 29-57.
- 박효정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연아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조건적 관심이 자기개념명확성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수반성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경현, 신현진, 문지영 (2010). 부모의 과보호와 아동의 사회불안. *스트레스*, 18(1), 19-27.
-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특특 병원뉴스 (2018, 08, 20). <https://blog.naver.com/chsnuh/221342195283>.에서 2018. 08. 20 자료 얻음.
- 송보라, 이기학 (2009). 사적 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95-205.
- 신민진, 하은혜 (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59-477.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557-576.
- 오세나 (2016). 부의 과보호와 남녀청소년의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고은, 방희정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명확성의 관계: 애착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03-122.
- 윤은주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완벽주의 성향, 사회불안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보연, 이주영 (2020). 대학생의 자기개념명확성과 사회불안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기대 차이의 매개효

- 과. 재할심리연구, 27(2), 19-34.
- 이슬 (2016). 초등학생이 지각한 모의 과보호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시은 (2009).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형태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또래 애착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81-500.
- 정은영 (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채숙, 마정건 (2003).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공주대학교교육연구소 교육연구, 17, 1-19.
- 차재선, 임성문 (2016). 청소년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애,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 한국청소년연구, 27(4), 231-258.
- 최은경, 임정하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적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3), 101-127.
- 최은숙, 김완일 (2014). 초기부적응도식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109-123.
- 최진영 (202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리, 박성욱 (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11(2), 551-566.
- 홍민지, 이소연 (2018). 어머니의 특성불안과 과보호, 청소년의 행동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6(2), 1-21.
- A. M Lagreca. & N. Lopez.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2), 83-9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th eds.)*, Washington, DC: Author.
- Blaine, B., & Crocker, J. (1993). *Self-esteem and self-serving biases in reactions to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An integrative review*. In R.E Baumeister(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pp.55-85). New York: Plenum.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rtz, I. M., Lavallee L. F., & Lehman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 Campbell, J. D., & Fehr, B. (1990). Self-esteem and perceptions of conveyed impressions: Is negative affectivity associated with greater real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 122-133.
- Campbell, J. D., Chew, B., & Scratchley, L. S. (1991).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59(3), 473-505.
-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 36(1), 211-221.
-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5-140.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pp.69-9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Glass, C. R., & Furlong, M. (1990).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Affec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4), 365-384.
- Heinrichs, N., & Hofmann, S. G. (2001). Information processing in social phobia: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5), 751-770.
- Holmbeck, G. n., Johnson, S. Z., Wills, K. E., McKernon, W., Rose, B., Erklin, S., & Kemper, T. (2002). Observed and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in relation to psychosocial adjustment in preadolescents with a physical disability: The mediation role of behavioral autonom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96-110.
- Johnson, H. S., Inderbitzwn-Nolan, H. M., & Schapman, A. M. (2005). A comparison between socially anxiou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youth: A focus on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Anxiety Disorders*, 19(4), 423-422.
- Kashdan, T. B., & Herbert, J. D. (2001). Social anxiety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1), 37-61.
- Kihlstrom, J. F., Cantor, N., Albright, S. J., Chew, B. R., Klein, S. B., & Niedenthal, P. M. (1988).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study of the self.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 145-178. SanDiego, CA: AcademicPress.
- Krupa, L. M. (2018). *The impact of self-concept clarit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California.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pp.94-112).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ieb, R., Wittchen, H.-U., Höfler, M., Fuetsch, M., Stein, M. B., & Merikangas, K. R. (2000). Parental psychopathology, parenting styles, and the risk of social phobia in offspring: a prospective-longitudinal community stud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9), 859-866.
- Linyinglan, 오인수 (2017). 한국과 중국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48(2), 75-93.
- Macho, S., & Ledermann, T. (2011). Estimating, testing, and comparing specific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phantom model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16(1), 34-43.
- Markus, H. (1990). Unsolved issues of self-represent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241-253.
- Marsh, H. W., Reiche, J. D., & Smith, I. D. (1983). Self-concept: The construct validity of interpretations based upon the SDQ.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173-187.
- Nezlek, J. B., Feist, G. J., Wilson, F. C., & Plesko, R. M. (2001). Day-to-day variability in empathy as a function of daily events and m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5(4), 401-423.
- Parker, G. (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 Rapee, R. M., & Spence, S. H. (2004).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Empirical evidence and an initial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737-767.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8), 741-756.
- Rapee, R. M., & Melville, L. F. (1997). Recall of family factors in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Comparison of mother and of spring reports. *Depression and Anxiety*, 5(1), 7-1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 Showers, C. J., Limke, A., & Zeigler-Hill, V. (2004). Self-structure and self-change: Applications to psychological treatment. *Behavior Therapy*, 35(1), 167-184.
- Stopa, L. (2009). Why is the self important in understanding and treating social phobia?.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8(S1), 48-54.
- Stopa, L., Brown, M. J., Luke, M. A., & Hirsch, C. R. (2010). Constructing a self: The role of self-structure and self-certainty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10), 955-965.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Usborne, E., & Taylor, D. M. (2010). The role of cultural identity clarity for self-concept clarity,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7), 883-897.

원고접수일: 2023년 6월 15일

논문심사일: 2023년 8월 1일

게재결정일: 2023년 12월 18일

The Effect of Parents' Overprotection on Social Anxiety in Early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esteem

Eun-mi Eom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Human Service
Hanyang Cyber University

Kyoung-min Shin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This study evaluated the mediation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overprotection and social anxiety in early adolescent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parents' overprotection, self-concept clarity,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for 461 student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located in Gangwon-do.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the 25.0 program and AMOS 24.0 program.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showed that, parental overprote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dolescents' social anxiety,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concept clarity and self-esteem. In addition, self-concept clarity and self-esteem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anxiety, and self-concept clarity and self-estee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Notably, the clarity of self-concept in the path of overprotection of parents and social anxiety in early adolescence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addition, self-concept clarity and self-esteem were sequentially mediated in the path of parental overprotection and early adolescents' social anxiet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In addit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social anxiety, parents' overprotection, self-concept clarity, self-esteem, early adolescents